

고무화학제품 2003년에도 올상!

경기회복 지연 및 카르텔 조사가 걸림돌 ... 2004년 회복 전망

고무화학제품(Rubber Chemical)은 자동차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비자지수는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아직은 뚜렷한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시작된 고무 화학제품 가격담합 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RMA)에 따르면, 지속된 경기침체 및 회복지연으로 미국의 2003년 고무화학제품 출하량은 전년대비 약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차 생산량 증가, 상업용 트럭 시장 반등 및 미국 경기강세로 2004년에는 출하량이 3% 증가하고 GDP 증가 및 산업생산지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8%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무화학제품은 호스, 벨트, 시트 및 신발 밑창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나 90% 가량이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0% 가량이 타이어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타이어나 자동차 산업은 가격상승 저항력이 높은 특징이 있다.

신규(Original Equipment) 및 교체(Replacement)를 포함한 2003년 자동차 및 트럭 출하량은 약 3억400만대로 2002년 3억840만대에 비해 약 450만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3억84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형 자동차 판매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면 고무화학제품 시장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교체 시장에서 긴 수명의 타이어가 인기를 끌면서 타이어 신규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 판매량의 75%가 대체 타이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규 자동차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International Institute of Synthetic Rubber Producers(IISRP)에 따르면, 북미 합성고무 사용량은 2002년 222만톤으로 둔화세를 나타냈으나 2003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1.5% 증가하고 2007년까지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미 합성고무 시장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Solutia 및 Akzo Novel의 50대50 합작기업인 Flexsys는 2004년 1/4분기에 웨스트버지니아주 Nitro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Flexsys의 합성고무 사업은 그동안 수 많은 경쟁기업들 속에서 압박을 받아 왔으며 결국 수익악화로 이어졌다.

또 세계 최대의 타이어 생산기업인 Goodyear Tire & Rubber는 자금회전의 어려움으로 타이어 사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odyear Chemical은 기초 및 고기능성 Polymer, 산화방지제(Antioxidant), Latex 및 접착제 Resin을 세계 수요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7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Solutia 및 Crompton은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다. Solutia의 한 주주는 Solutia 및 가격담합에 연루된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2명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명의 고위 관리 인사들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Solutia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 법무부 및 European Union(EU)은 2002년 10월부터 고무화학제품 메이저들의 카르텔 여부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Kline에 따르면, Flexsys를 비롯해 Crompton, ExxonMobil, TotalFinaElf 및 Bayer 등 조사대상에 포함된 화학기업 가운데 Crompton, Flexsys 및 Bayer가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Journal 2004/03/11>